

SPORTS1

— 2022 02 vol.68 —





- 본지는 한국도서접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본지에 게재된 기사는 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발행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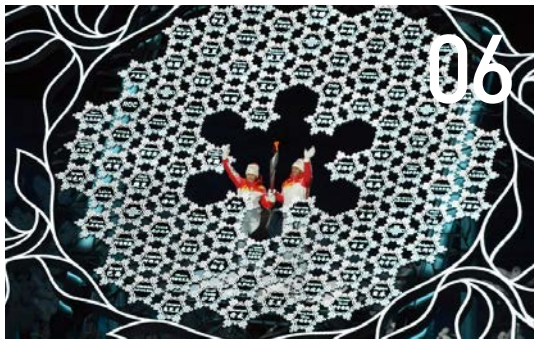
아티스틱스위밍 허윤서 선수

허윤서 선수는 8살부터 국가대표 하나만을 바라보며 훈련에 매진해 중학교 3학년 때 최연소 아티스틱스위밍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태극기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목표가 있으면 이를 때까지 무조건 노력하는 끈기’라고 말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허윤서 선수.

올해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권에 오르고, 2024 파리올림픽에 결선 진출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하는 허윤서 선수의 꿈을 응원합니다.





SPORTS1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Monthly Magazine

2022 02 vol. 68

발행인 이기흥 회장
편집인 조용만 사무총장
발행처 대한체육회 홍보실
발행일 2022년 02월 21일
주소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전화 02,2144,8114
팩스 02,420,4233
홈페이지 www.sports.or.kr
등록번호 송파, 라 00052
기획/디자인 디자인메카 02,516,1910

생생 스포츠

04 스포츠 하이라이트

Team Korea, Proud of You!

06 기획특집

1.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둘러보기
 - ① Beijing 2022-Beginning : 개막식 스케치
 - ② Beijing 2022-Now : 팀코리아 둘러보기
2. Team Korea! 다시 감동으로
 - ① Look at-Team Korea : 종목 및 선수 명단
 - ② Our History :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역사

18 이슈체크

- ① 2022 대한민국 체육인대회 '체육인이 바란다' 개최
- ② 디지털 등기부등본 NFT, 스포츠 영역으로 확장

24 스페셜 리포트

이제 우리는 국가스포츠위원회를 논할 때이다

26 유관기관 탐구생활

스포츠 실무교육의 중심
한국스포츠교육개발원

활력 스포츠

30 Our Team, Our Dream

검과 함께 나누는 삶의 즐거움
연세검우회

34 물건의 기억

허윤서 선수의 수영복

36 내일의 챔피언

수면 아래에서 인내하고, 수면 위로 박차 오르며 연기하다
압구정고등학교 허윤서 선수

40 Fun&Fun 학교체육

체육 중점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다
인천송도고등학교

공감 스포츠

44 #오늘하루운동

힙합과 발레의 이유 있는 만남, 힙레(Hip-let)

46 #힐스타그램

스포츠 '윌클 스타'들이 전하는 웃음과 감동!

48 #건강 팩트체크

또 감기야?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

50 #선수촌 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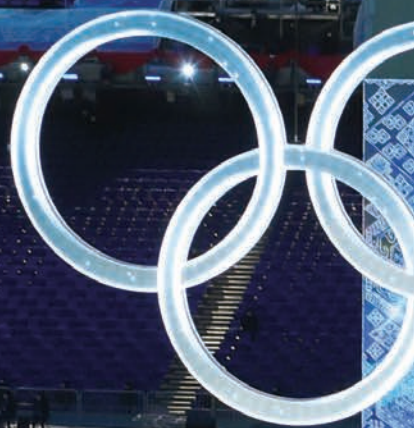
천바람 속 찾아온 봄 햇살 같은 건강한 상큼함, 한라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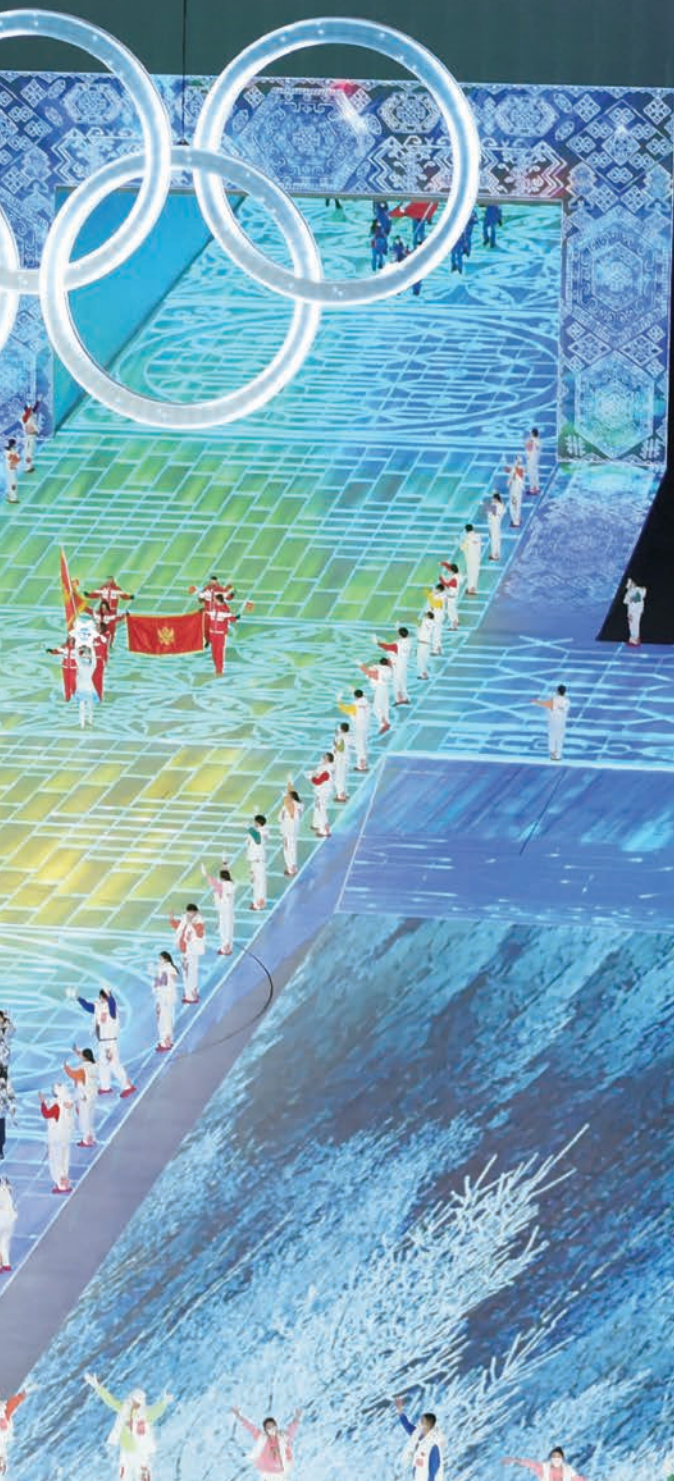
52 #KSOC 모의고사

도전! 나도 Spor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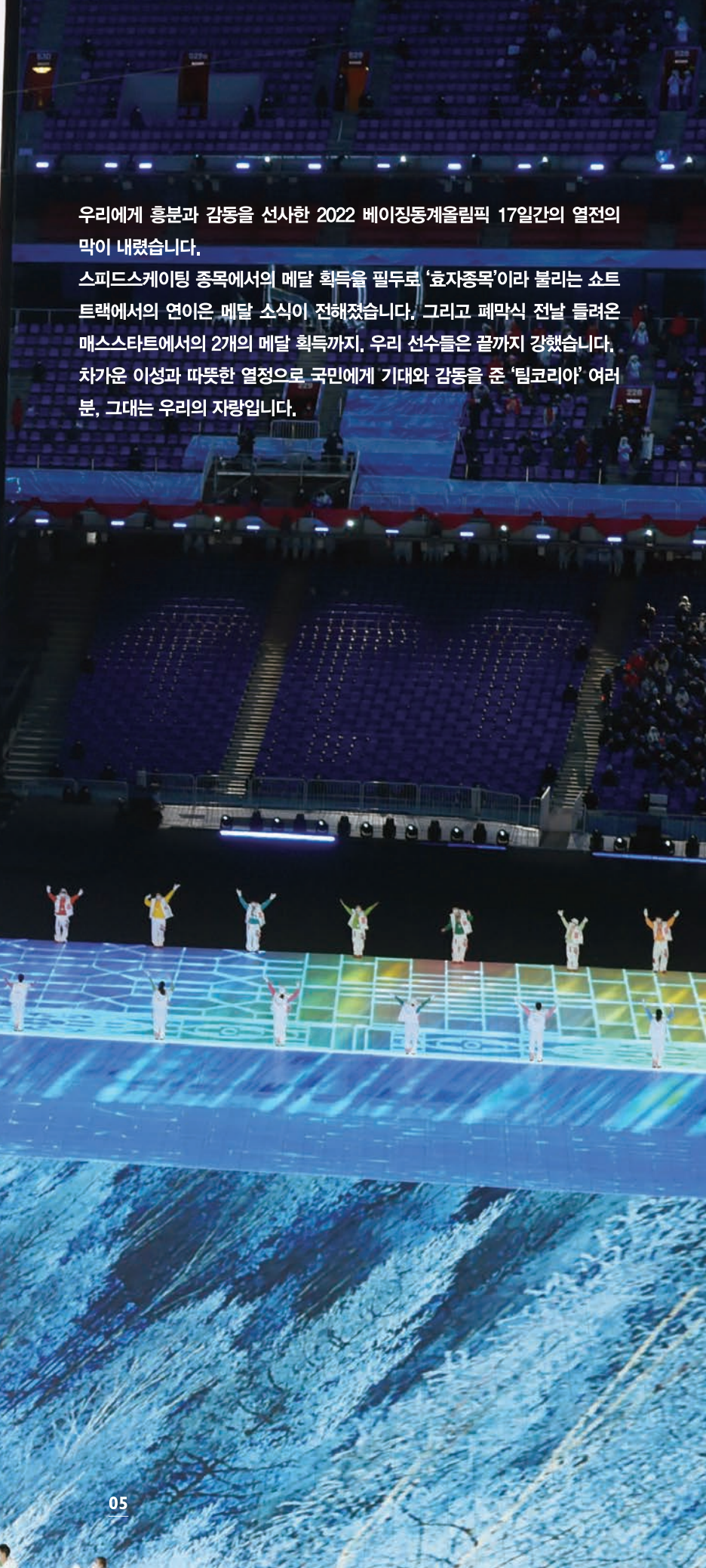
54 #KSOC News

Team Korea Proud of You!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의 메달 획득을 필두로 ‘호자종목’이라 불리는 쇼트트랙에서의 연이은 메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폐막식 전날 들려온 매스스타트에서의 2개의 메달 획득까지, 우리 선수들은 끝까지 강했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열정으로 국민에게 기대와 감동을 준 ‘팀코리아’ 여러분, 그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제24회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 '함께하는 미래'의 시작

모두가 기다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의 개막일인 2월 4일은 24절기의 하나인 입춘이었다. 이를 상징하는 'SPRING(입춘)' 불꽃을 시작으로 지구촌 대축제인 동계올림픽의 막이 올랐다 '함께하는 미래(Together for a Shared Future)'를 슬로건으로 이날 밤 9시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개막식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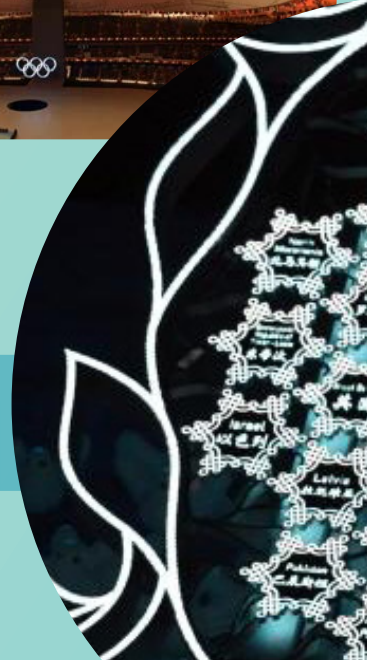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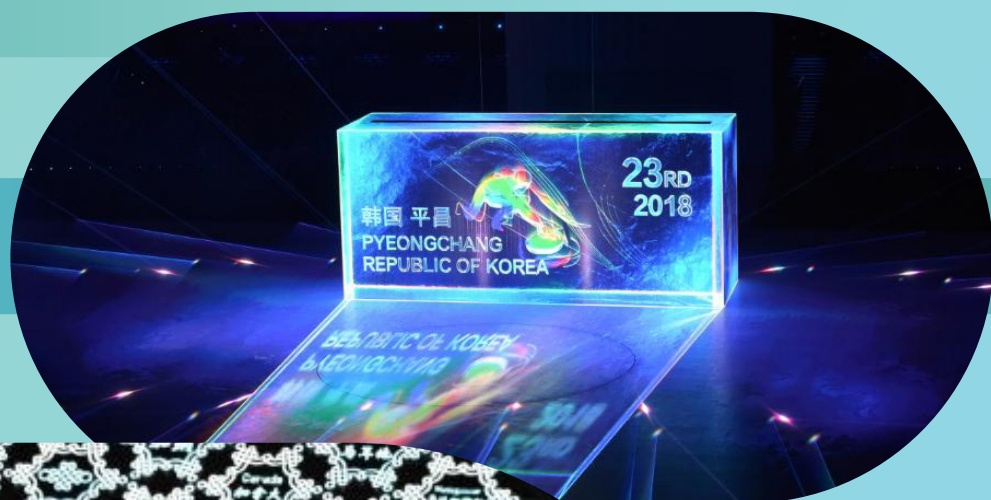
깊은 올림을 안고 17일간의 열전에 돌입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됐지만 세련된 기획력과 디자인으로 깊은 올림을 줬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반인에게 개막식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올림픽 역사상 가장 작은 성화가 점등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지난해 8월 도쿄올림픽에 이어 평화 상징의 노래인 존 레논의 '이미진(imagine)'도 올려퍼졌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쇼트트랙 종목의 곽윤기와 김아랑 선수를 기수로 91개 참가국 중 73번째로 입장하며 반갑게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선수 64명, 관계자 56명, 코로나19 대응팀 5명 등 총 125명이다. 우리 선수들은 빙상과 스키, 컬링, 봅슬레이, 루지, 바이애슬론 등의 종목에 출전했다. 이번 선수단의 공식 단복은 '한반도의 등줄기 태백산맥 정상에서 휘날리는 태극기'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이색적인 디자인과 한국의 자연문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많은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개막식 이후 베이징과 옌칭, 장자커우 3개 지역에서 7개 종목,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전 세계 91개 나라 2,900여 명의 선수단이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





최선을 다한 팀코리아 감동은 언제나 진행중



팀코리아 선수들은 코로나19 여파와 판정 이슈 등의 악재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 이는 지난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팀코리아 선수들이 국민에게 전한 감동 못지않은 큰 울림이 됐다. 자신과 동료を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글 편집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쇼트트랙 종목은 대회 초반의 우려를 씻어내고 남녀 1,500m 경기에서 황대헌과 최민정이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정상을 지킨 최민정은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 중 전이경(1994년 릴레함메르-1998년 나가노)에 이어 두 번째로 올림픽 2연패를 일궈낸 선수가 됐다. 이외에도 쇼트트랙은 최민정이 1,000m 은메달을, 남녀 계주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하며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향해 쇼트트랙 최강국임을 증명했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메달 주인공은 스피드스케이팅 1,500m에 출전한 김민석이었다. 4년 전 평창대회 동메달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입상에도 성공했다. 차민규는 스피드스케이팅 500m 2위에 올라 올림픽 2개 대회 연속 은메달의 위업을 달성했다. 폐막 하루 전, 정재원과 이승훈이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 스타트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나란히 목에 걸었다. 정재원은 1위와는 불과 0.07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다. 이승훈은 한국 동계스포츠 최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올라섰다. 이승훈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메달 6개를 획득했다. 팀코리아의 이번 대회 총 메달 수는 9개(금2·은5·동2)이다.



밝은 미래를 확인하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은 두 번째 올림픽 무대에서 5위를 차지했다. 한국 피겨 선수가 올림픽에서 톱5에 든 건 '피겨 여왕' 김연아 이후 처음이다. 김연아는 2010 밴쿠버올림픽 금메달, 2014 소치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연아 키즈'도 첫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유영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6위에, 김예림이 9위에 오르며 김연아 이후 피겨 여자 싱글 선수의 올림픽 최고 성적을 거두며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하게 했다.

'빙속 여제' 이상화가 은퇴하며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했던 김민선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7위를 마크했다. 첫 올림픽이었던 2018년 평창 대회에서 부상 여파로 기대 이하



인 16위에 그쳤지만 두 번째 올림픽에선 성공적인 레이스를 펼쳤다. 남자 스켈레톤 기대주 정승기는 10위에 올라 '톱10 진입'이라는 목표를 이뤘다. 여자 매스스타트 종목의 김보름도 세 번째 출전한 이번 올림픽에서 2개 대회 연속 메달을 노렸으나 5위를 차지했다. 비록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많은 응원 속에서 어느 때보다 행복한 경기를 치르며 다음 대회를 기약했다.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동계스포츠를 책임지며 더 높게 도약할 선수들의 밝은 미래를 확인했다. 이들의 흔들림 없는 성장을 기대해본다.

썰매와 설상 종목의 아쉬움을 돌아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판정 이슈 등 각 종 약재 속에서도 분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의 투혼은 빛났지만,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이외의 종목에서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을 들쭉이게 한 스켈레톤 윤성빈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스노보드 이상호도 메달권에 미치지 못하며 큰 아쉬움을 남겼다. 많은

기대를 모은 여자 컬링 '팀킴'도 4강 문턱에서 좌절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노르딕 복합 등에서도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다. 스키점프에서는 한 명도 올림픽 출전권을 따지 못한 상황이다. 선수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전지훈련을 가지 못했고, 국내에서도 마땅한 훈련장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선수를 발굴해야 할 각 종목 단체들도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빙상 외 종목이 부진한 이유로 꼽힌다. 평창대회 이후 제대로 된 세대교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은 20일 베이징 대회 결산 기자회견에서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였다"면서도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빙상 외에 설상과 썰매 종목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돌아봤다. 또한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취약 종목에 대한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다양한 종목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팀코리아’ 선수를 소개합니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한 팀코리아 64명의 선수들, 자신의 플레이를 하며 매 경기에서 최선을 다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비해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참가 선수들의 면면은 화려했다. 디펜딩챔피언으로 2연패를 달성한 쇼트트랙의 최민정과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민석, 컬링 여자 ‘팀킴’, 스노보드의 이상호 등 대한민국 대표선수들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빙상-신구 조화 속에서의 계승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전통 강호로 군림해온 쇼트트랙 종목에 10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남녀 에이스인 황대헌과 최민정이 개인전 전 종목에 출전해 메달을 노렸다. 초반 판정 이슈 등 여러 악재를 극복하며 기대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베테랑 김아랑이 이끄는 여자 3,000m 계주와 곽윤기가 이끄는 남자 5,000m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하며 쇼트트랙 강국의 명성을 이었다.

스피드스케이팅은 500m에서 토리노 2006부터 꾸준히 메달을 획득하며 쇼트트랙에 이어 어느새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세대교체가 진행 중인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백전노장 이승훈과 김민석, 정재원이 팀추월 종목에 출전했다. 차민규와 김준호도 개인전에 나섰다. 유망주 김민선과 김현영, 매스스타트에 출전한 김보름과 박지우가 경기에 출전해 주목받았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최근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차준환이 상승세를 타며 '피겨 여왕' 김연아 이후 최고 성적인 5위를 차지했다. 유소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며 세계 랭킹 3위인 유영도 6위에 오르며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게 했다. 김예림과 이시형의 성장도 관전 포인트가 되어 국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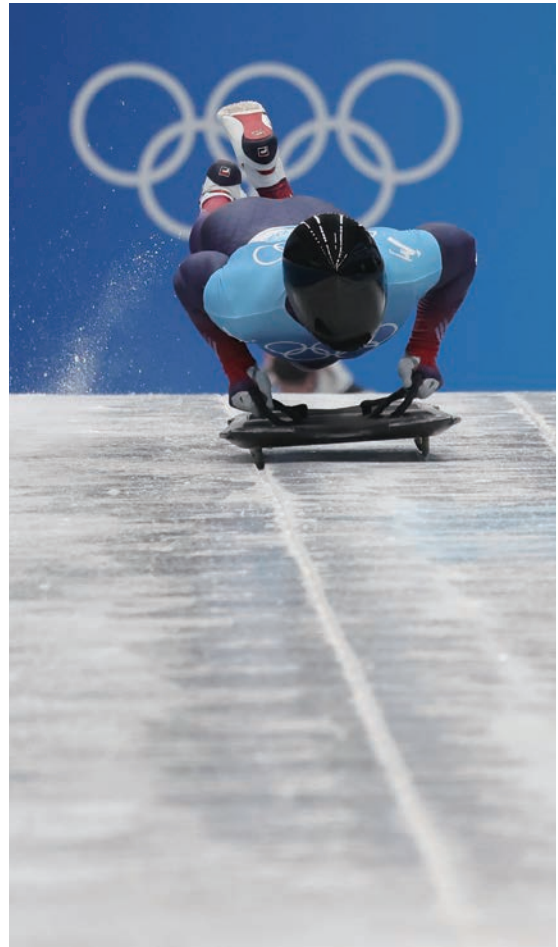
평창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여자 컬링 '팀킴'은 비록 4강의 문턱에서 좌절했으나 그들이 보여준 '파이팅'은 평창대회 못지않았다.



설상-동계올림픽 원조 종목에서의 비상

설상 종목에서의 도전이 이어졌다. 동계올림픽의 '원조' 종목인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에 우리 선수들이 꾸준히 출전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 특히 크로스컨트리의 이채원은 여섯 번째로 올림픽 무대를 밟으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다. 노르딕 복합과 바이애슬론 등의 종목에도 박제언과 김선수 등 각각 한 명씩 출전했다.

화려한 개인기를 선보이는 프리스타일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 유망주로 주목받는 장유진이 프리스타일 스키 종목에 출전했다. 평창대회에서 역사적인 은메달을 획득한 스노보드의 이상호는 목표한 성적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썰매-다시 힘차게 얼음 위의 질주

스켈레톤 올림픽 챔피언 윤성빈과 지난 대회 남자 4인승 봅슬레이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원윤종 팀이 다시 한번 올림픽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독일에서 귀화한 루지의 아일린 프리쉐는 평창에 이어 이번 대회에도 대한민국 선수로 출전했다. 김유란은 이번 대회에 처음 도입된 여자 1인승 모노봅 종목에 나섰다. 🏅

팀코리아 64명의 선수를 소개합니다



피겨스케이팅 (4)

김예림 | 유영 | 이시형 | 차준환



크로스컨트리 스키 (5)

김민우 | 이의진 | 이채원 | 정종원 | 한다솜



스노보드 (4)

이상호 | 김상겸 | 정해림 | 이나윤



루지 (4)

박진용 | 임남규 | 조정명 | 아일린 프리셰



스피드스케이팅 (10)

김민석 | 김민선 | 김보름 | 김준호 | 김현영
박성현 | 박자우 | 이승훈 | 정재원 | 차만규



알파인 스키 (3)

강영서 | 정동현 | 김소희



노르딕 복합 (1)

박제언



봅슬레이 (8)

원윤종 | 김동현 | 김진수 | 정현우 | 석영진
장기진 | 김형근 | 김태양



모노볼 (1)

김유란



쇼트트랙 (10)

곽윤기 | 김동욱 | 김아람 | 박장혁 | 박지윤
서희민 | 이유빈 | 이준서 | 최민정 | 황대헌



바이애슬론 (3)

김선수 | 예카테리나 에바쿠모바 | 티모페이 랍신



프리스타일 스키 (3)

김다은 | 장유진 | 이승훈



스켈레톤 (3)

김은지 | 윤성빈 | 정승기



컬링 (5)

김경애 | 김선영 | 김영미 | 김은정 | 김초희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메달 집계

총 9개(금메달 2 / 은메달 5 / 동메달 2)

메달	이름	종목	세부 종목
금메달	황대헌	쇼트트랙	남자 1,500m
금메달	최민정	쇼트트랙	여자 1,500m
은메달	최민정	쇼트트랙	여자 1,000m
은메달	차만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은메달	김아람, 서희민, 이유빈, 최민정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은메달	곽윤기, 김동욱, 박장혁, 이준서, 황대헌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	정재원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
동메달	김민석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동메달	이승훈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 감동과 환희의 역사의 장 펼쳐보기



프랑스 알레르빌

순위 **10위**

합계 **4**

**쇼트트랙 전설의 시작 김기훈,
대한민국 사상 최초 동계올림픽 금메달**

스피드스케이팅 1,000m에 출전한 김윤만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로 최초로 동계올림픽 메달(은메달)을, 쇼트트랙 1,000m에 출전한 김기훈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대회였다. 빙판의 제왕 김기훈이 0.04초차의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중국과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를 제패했다.



이탈리아 토리노

순위 **7위**

합계 **11**

**쇼트트랙 진선유,
종목 사상 최초 올림픽 3관왕 등극**

이탈리아에서 2번째로 개최한 대회로 남북한이 공동 입장했다. 진선유는 쇼트트랙 여자 1,000m, 1,500m,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종목 사상 최초의 올림픽 3관왕이 됐다. 중국과의 자존심 대결로 압축된 1,000m 결승전은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명장면으로 기억된다.

1992

1994

1998

2002

2006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순위 **7위**

합계 **6**

**쇼트트랙 김윤미,
역대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극**

알베르빌 대회 이후 2년 만에 열린 대회로, 이윤미 선수는 역대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만 13세 3개월)로 등극했다. 김기훈은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개인종목 2연패에 성공하며 다시금 세계 정상에 올랐다.



일본 나가노

순위 **9위**

합계 **6**

**오른발 날밀기-쇼트트랙 전이경,
개인·계주 2관왕**

20세기에 열린 마지막 올림픽으로, 전이경이 여자 쇼트트랙 1,000m, 3,000m 계주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올림픽 2관왕 2연패, 금메달 4개로 대한민국 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총 메달 개수 5개로 최다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순위 **14위**

합계 **4**

**쇼트트랙 여자 계주,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르다**

미국에서 4번째로 개최한 동계올림픽이며,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은 1,500m에서 금·은 메달, 3,000m 계주에서 금메달, 1,0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3,000m 계주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 보다 반 바퀴를 더 타고 교대하는 작전을 써 중국을 따돌리고 올림픽 3연패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의 동계올림픽 첫 출전은 1948년 제5회 생모리츠동계올림픽이다.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의 최용진, 이종국, 이효창 3명이 출전해 감격의 첫 대회를 치렀다. 첫발을 내디딘 이후 44년이 지난 1992년 제16회 알베르빌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의 김윤만이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출전 사상 최초로 메달(은메달)을 획득했다. 그리고 드디어 쇼트트랙의 김기훈이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메달밭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2010년 제21회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는 김연아가 '피겨 여왕'에 등극하는 등 동계올림픽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는 마침내 2018년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며 동·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나라가 되었다. 이처럼 감동과 환희로 새겨진 역사의 장을 함께 둘러보자.

글 편집실



캐나다 밴쿠버

순위 **5**위

합계 **14**

All-podium 김연아, 피겨 여왕의 대관식

캐나다에서 3번째로 개최한 대회로, 김연아는 대한민국 최초로 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역대 최고점을 획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피겨 그랜드슬램 달성은 물론, 시니어대회 데뷔 이후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한 종목 최초의 '올포디움'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대한민국 평창

순위 **7**위

합계 **17**

썰매 황제의 탄생, 아시아 최초 썰매 종목 금메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한 동계올림픽으로 역대 동계올림픽 중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순위 7위에 올랐다. 스켈레톤의 윤성빈은 트랙 레코드를 갱신하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러시아 소치

순위 **13**위

합계 **8**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단거리 최강자 등극

역대 모든 스포츠 대회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대회이다. 이상화는 밴쿠버에 이어 소치동계올림픽에서도 올림픽 기록을 세우며 500m 금메달을 획득했다. 37.28초의 압도적인 기록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올림픽 2연패를 달성, 단거리 최강자로 자리를 굳혔다.



중국 베이징

순위 **14**위

합계 **9**

코로나19와 개최국 어드밴티지, 그러나 쇼트트랙 최강은 대한민국

중국의 베이징, 연칭, 장자커우에서 종목별 경기를 치렀다. 대회 초반 쇼트트랙 종목, 중국이 개최국 어드밴티지에 힘입어 앞서 나갔지만 대한민국 쇼트트랙은 강했다. 남녀 에이스 황대헌과 최민정이 각각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최강국의 자리를 지켰다.

2022 대한민국 체육인대회 ‘체육인이 바란다’ 개최

지난 1월 25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체육인들의 사기진작 및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중점과제 발표 및 체육인 의견수렴 등을 위해 2022 대한민국 체육인대회 ‘체육인이 바란다’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체육인·여야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치러졌다.

글 편집실



미래 체육 100년 선도할 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체육인이 바란다’는 미래 체육 100년을 선도할 주요 체육정책 및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해 이재명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국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등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등 여야 정치권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먼저 1부 행사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김택천 창덕여자고등학교 수석교사의 발의로 시작됐다. 김택천 교사는 체육 수업시간 확대 및 전문화, 학생선수에게 대한 교육적 지원 강화 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손석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명예회장이 정부스포츠조직 혁신 및 기능 효율화 방안으로 국가스포츠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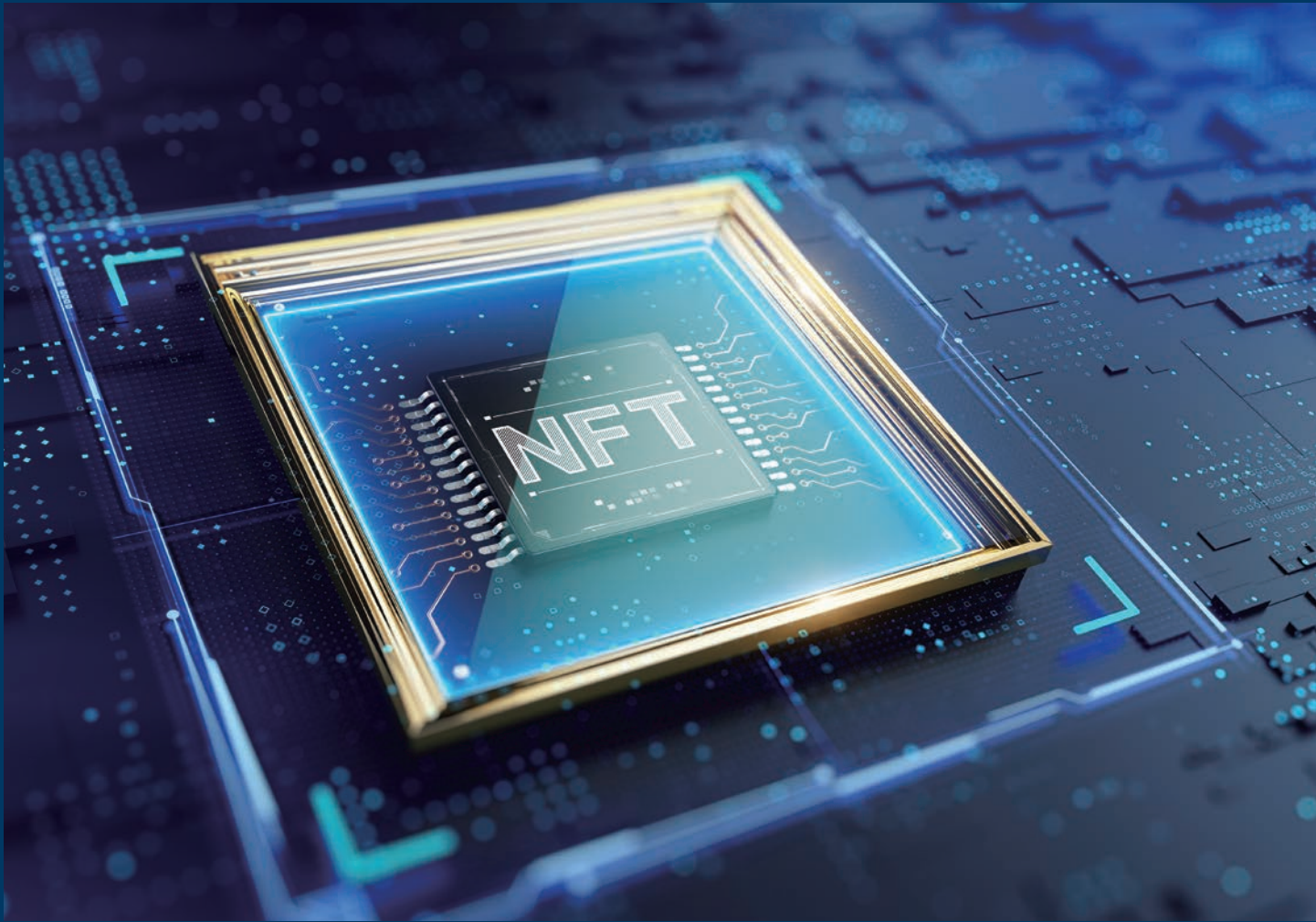
마지막은 현재 체육 분야 재정 부분으로, 현재 재정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배분 개선방안에 대해 김승곤 대한체육회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이 발표했다. 김승곤 위원은 현재 체육계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50%를 대한체육회의 목적사업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행사는 앞서 발표한 체육 분야 중점과제 동영상 시청과 함께, 현장에 참석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체육인이 바란다> 책자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책자를 받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체육 분야 주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과 함께 체육인들의 의견에 대해 하나하나 화답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대상을 대한체육회 임원, 지방체육회장, 회원종목단체장, 선수대표, 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 대표단, 전국직장운동경기부연합회 회장단, 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단, 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회장단, 각 체육단체 대표단 등 체육 분야 각계를 대표하는 임원단을 중심으로 최소화하였다. 현장에 참석할 수 없는 체육인들은 유튜브 대한체육회 TV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행사를 공유했다. 분야별 중점과제 발표 이후에는 줌(ZOOM)을 통해 현장 체육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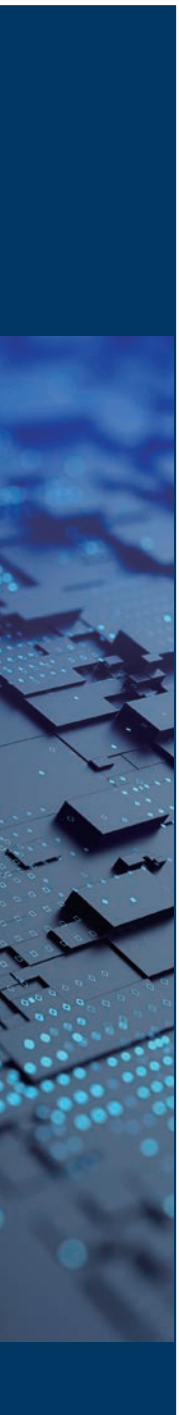
대한체육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스포츠 복지국가 토대 마련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생한 현장 체육인들의 의견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미래체육 발전을 위한 분야별 중점과제에 대해 차기정부의 관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디지털 등기부등본 NFT, 스포츠 영역으로 확장



지난 2월 4일 성대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각국의 치열한 메달 레이스가 펼쳐졌다. 각국의 국민은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과 노력에 큰 감동을 받는다. 이러한 감동의 순간들을 온전히 간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글 윤석빈 서강대학교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 사무국장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디지털 등기권리증

대체 불가능한 순간들을 담을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요즘 핫한 주제인 NFT이다. NFT는 Non Fungible Token의 약자로, 특정 자산에 대해 암호화된 소유권과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기록하는 토큰이다. NFT는 쉽게 말해서 디지털 등기부등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실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인 등기를 하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을 인증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래서 NFT를 디지털 인증증명서, 소유권 증명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NFT는 복잡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이다. 원본이 저장된 곳의 인터넷 주소, 소유자의 신원 정보, 원본 작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들어가 있다. 블록체인상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하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NFT 정보는 담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교환이나 대체가 불가능해 ‘대체불가능토큰’이라고 부른다. 서로 교환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비트코인과는 차별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 - 외부 저장매체 - 메타데이터 3단계 구성

현재, NFT에 대해 여러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 기술 요소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블록체인상에 보관된 NFT 스마트 컨트랙트가 외부 저장매체에 보관된 NFT 메타데이터의 위치를 알려주고, NFT 메타데이터가 다시 또 다른 외부 저장매체에 보관된 원본 작품의 위치를 알려주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의 경우 디지털 콘텐츠와 NFT는 메타데이터를 통해 연결된다.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콘텐츠를 보관 중인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의 경로 즉, 토큰 URI 정보를 담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모든 내역을 임의로 위변조 할 수 없다. 그러나 메타데이터의 경우, 오픈된 토큰 URI와 연결된 IPFS 콘텐츠가 보관되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쉽게 복제할 수 있어 NFT의 무분별한 발행이 가능하다. NFT 자체는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보관되나 메타데이터 즉 데이터 정보는 블록체인 외부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안에 있어 취약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술적 구조를 이해하고 NFT가 만능이 아니라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며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

많은 사람, 특히 젊은 층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한다. 소비 패턴이 달라진 것이다. 이런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NFT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을 남들과 공유하면서도 콘텐츠 소유권을 자랑할 수 있다.

NFT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연결과 융합에 있어 연결점이라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요즘 대두되는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면서 NFT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NFT를 통해서 기존 암호 자산, 가상 자산의 세계에서 실물 자산, 실물 세계와의 연결 고리이면서 확장하는 것은 시대의 트렌드며 팩트다. 기존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대변되는 가상 자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NFT를 통해서 실물 자산, 디지털 아트 세계로 확장하는 것을 필자는 실감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여러 시장조사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NBA 탑샷, 특별함과 희소성이 만들어지는 과정

미국 프로농구 NBA 탑샷(Topshot)이 대표적이다. NBA 플레이어들의 슛 장면을 NFT화 하고 이것을 거래하는 마켓 플레이스를 말한다. 사용자 관점에서도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사용자 경험, 유저 인터페이스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NBA 탑샷은 충분히 일반 사용자들도 편안하게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수준이다. 블록체인으로 유명한 크립토 키티 서비스를 만들었던 테퍼랩스라는 회사가 플로어(flow)라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NBA 탑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A 레이커스 소속 르브론 제임스가 최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농구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꼭 방문하길 추천한다.


NFT는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디지털 아트에서도 촉발되었다. 무명의 디지털 아티스트 작가 비플이 순식간에 세계적인 스타 작가 제프 쿤스, 데이비드 호크니와 함께 이름이 거론된 것도 NFT 덕분이다. 그는 가장 비싼 'NFT 화가'로 등극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작가 3위에 올랐다. 2021년 비플의 NFT 작품 'Everydays : The First 5000 Days'가 6,930만 달러(약 829억 원)에 낙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NFT 돌풍이 일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변화 주도**

해외 스포츠계와 디지털 아트 등 확산한 NFT 열풍은 우리나라 스포츠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이번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국가대표 선수단을 활용한 스포츠 NFT를 발행했다. 남자 쇼트트랙 박윤기, 여자 쇼트트랙 김아랑, 여자 컬링 대표팀 김선영 등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한 60여 명의 팀코리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과정과 성과들을 담은 영상과 사진 등 팀코리아의 스포츠 자산을 NFT의 다양한 구성으로 기획됐다.

팀코리아 NFT를 시작으로 스포츠인의 NFT 사업이 크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NFT 사업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단 및 스포츠 자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생성해 부가가치를 형성하고, 판매수익을 창출하여 체육진흥 등 체육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스포츠 자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하고 스포츠산업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

NFT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커뮤니티 즉 팬덤이다. 그 팬덤이 NFT를 통해서 실력은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종목의 선수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대형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많은 선수에게 그 가치가 공유되는 것도 중요하다. 스포츠 NFT 등을 통해서 프로 스포츠 스타에게 집중된 스포트라이트가 국가대표 선수와 실력 있는 선수들에게 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방적 혁신으로 한계에 도전하며 최선을 다하는 많은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이제 우리는 국가스포츠위원회를 논할 때이다

2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지구촌 겨울 축제인 베이징동계올림픽이 개최됐다. 올림픽 기간 내내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자연스럽게 올림픽 소식을 접했다. 이는 스포츠가 단순한 운동경기가 아닌 인류의 문화이며 우리 생활의 일부분임을 증명한 것이다.

글 손석정 전 남서울대 교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명예회장

국민의 권리인 스포츠 향유권과 스포츠 복지

지난해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이 2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 4조는 스포츠 향유권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공공재로서 스포츠의 효용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스포츠는 하나의 복지로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스포츠 향유권이나 스포츠 복지는 모두 인간다운 삶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이다. 인간다운 삶이란 행복한 삶을 의미하며 행복한 삶이란 건강한 삶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건강한 삶이 바로 행복의 필수조건이지만 우리 국민은 기대수명이 83.5세(2020년)에 비해 건강수명이 고작 70.4세(2018년)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스포츠가 국민건강에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운동 실천을 1위로 뽑았고, 체육 분야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1위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들고 있다. 이는 스포츠가 최고의 국민건강 증진 수단으로서 건강한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정책



분야뿐 아니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생활스포츠에 1달러 투자 시 3달러의 효과가 발생하고, 아동기 신체활동 1달러의 투자는 성인이 되었을 때 4~9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등의 스포츠 가치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반화되어 있다.

건강증진 외에도 오늘의 스포츠는 지역경기대회 개최, 스포츠관광, 전지훈련 특화 시설 운영 등을 통해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미래 국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스포츠산업은 세계적으로 1,592억 원(2019년)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스포츠를 품은 스포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 연계된 스포츠 메타버스로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한 스포츠는 IOC와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한 MOU 체결, 기후변화협약 스포츠 기후 행동 협정에 스포츠 기구의 가입 확산 등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스포츠 강국으로서 우리 선수들 역시 여전히 국가 위상을 높여주고 있다.


스포츠행정 조직의 혁신적인 재조직화 필요

반면에, 우리 스포츠의 제도적 환경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스포츠를 관장하는 정부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정부조직법상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 등 다양한 업무를 관장한다. 이러다 보니 문체부 내에서 스포츠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편이다.

지난 1982년 체육부가 설립되어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며 우리나라 체육을 한 차원 높이는 성과를 이룩했다. 설립 당시 3국 9과 1담당관 규모의 실무 담당 부서는 40년이 지난 지금은 1국 6과로 축소되었고, 명칭 또한 체육부에서 체육청소년부(1988), 문화체육부(1993), 문화관광부(1998)를 거쳐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2008)가 됐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국민 행복과 건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스포츠의 역할 강화와 정책추진이 필요함에도 40년 전보다도 축소된 지금의 행정 규모로는 국민적 수요 및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미래 대비 지속가능한 스포츠 콘텐츠의 창출 능력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영역 확대로 스포츠 관련 업무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있음에도 정부 조직 간에는 비 연계적이고 실무적인 협업과 통합조정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래 스포츠의 규모 확대로 정부 부처의 영역 한계는 더욱 흐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한 거버넌스 구축과 범정부 차원의 스포츠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에 도래했다고 본다. 미래 사회 100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민 행복과 국민건강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스포츠 행정조직으로의 재조직화가 필요하다. 재조직화되는 행정조직은 국민의 스포츠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행정조직이 되어야 하고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조직이 되어야 한다.

새롭고 혁신적인 조직으로서 국무총리실 직속의 국가스포츠위원회 신설을 제안해 본다. 국가스포츠위원회는 민간 전문위원이 중심이 되는 의결 기능의 위원회와 스포츠 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체육부의 기능을 합친 조직으로서 합의제형 행정중앙기관이다. 바람대로 국가스포츠위원회가 운영된다면 첫째, 정부 내 스포츠의 위상은 격상될 것이고, 둘째, 민간 전문위원의 주도적 참여로 민주성·전문성을 갖춘 중앙행정기관이 될 것이다. 셋째, 스포츠정책 분야의 진정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국민을 위한 안정적인 효과적 스포츠정책이 집행될 것이고, 넷째,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스포츠 기능 통합 운영으로 전문적인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2022년에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시각으로 국민 행복과 국민 건강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스포츠행정 조직으로 재조직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스포츠 실무교육의 중심

한국스포츠교육개발원

한국스포츠교육개발원은 스포츠 전문가를 대상의 실무교육 중심 교육을 통해 자기 주도형 스포츠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돕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맞춤형 스포츠와 복지·융합교육 개발, 인재 양성 등에 집중하고 있다.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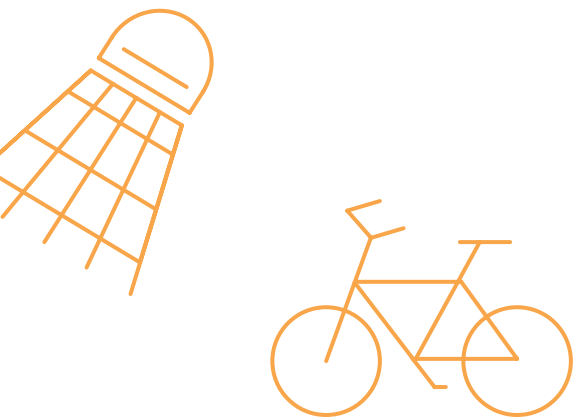
자기 주도적 스포츠 인재를 기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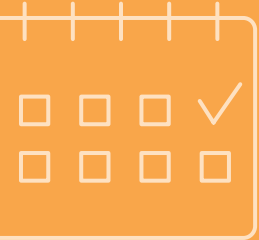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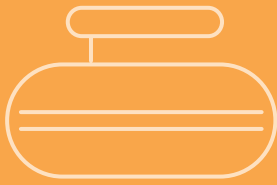
한국스포츠교육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제1대 대표인 김기조 이사장이 감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21세기의 시대사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주도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스포츠를 통해 행복한 생활과 세상,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자'라는 목표하에 2016년 설립했다.

개발원은 설립 후 약 6년 동안 현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스포츠 전문가와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더불어 그들이 자신의 체험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며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스포츠 플랫폼이자 인큐베이터를 지향한다.

김기조 이사장은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수들과 함께 여러 대학과 협약해 스포츠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한 후 졸업자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할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원을 설립했다.

수년간 스포츠 현장에서 체육 지도자로 활동하거나 대학에서 체육학을 강의하는 교수들이 개발원의 주요 멤버이다. 실무교육 중심으로 스포츠, 건강, 안전 및 사회복지 분야 지도자와 자기 주도형 스포츠 인재 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설립 이후 약 1,000여 명의 인재를 양성하다

개발원은 현재 이사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이사 20명 이내와 고문과 자문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대학에 재직 중인 스포츠 및 정책, 사회복지 분야 교수 50여 명과 관련 분야 현장 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신문사, 전통무예연구소, 봉사단체 등이 부설기관으로 마련되어 있다. 전문위원회(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도 갖추고 있어 운영위원회, 교수위원회, 연구교육위원회, 문화체육복지위원회, 재정위원회, 미디어홍보위원회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운영위원회는 개발원의 조직과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제반 기획과 세부운영계획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교수위원회는 여러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개발원 회원들과 회원들 가족들 및 지인들에게 대학 입학과 장학제도 혜택을 도와주고 여러 대학에 교수들의 강의의 기회를 장을 연다.

연구교육위원회는 개발원이 추구하는 자기주도 스포츠 인재 양성과 스포츠 교육 개발을 연구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문화체육복지위원회는 스포츠 대회 등을 기획하고 개최한다. 재정위원회는 기부금을 비롯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맡고 있다.

미디어홍보위원회는 개발원의 목적과 활동을 제반 SNS 등을 통해 회원과 외부에 홍보하고 전달한다. 현재, 개발원에서 배출한 교육생은 약 1,000여 명에 이른다.





생활 체육 발전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다

개발원은 스포츠, 복지, 문화 관련 분야에 민간등록자격증 발급 및 전문 강사 등을 해당 분야에 파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여러 대학과 협약해 학위과정 학생들을 배출하며 인재를 양성했다. 지금은 호원대학교, 경희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등과의 협약을 통해 체육학 및 사회복지사 학위과정을 개설해 매년 학사와 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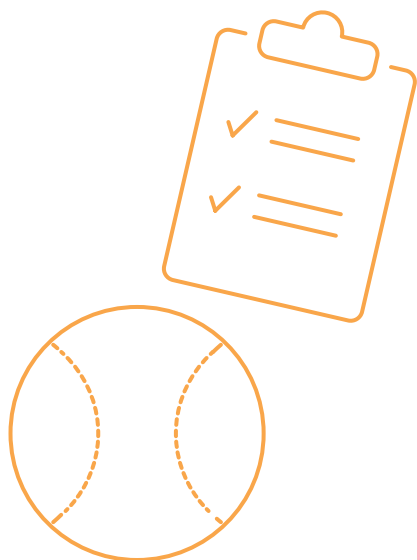
또한, 개발원은 과거 교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박정희 이사장이 책임지고 있다. 그는 2022년 1월, 제2대 이사장으로 선출되며 개발원 발전과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법무전문가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하고 있고, 다년간 태권도를 체육 현장에서 직접 지도한 체육 지도자이기도 하다.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개발원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지닌 스포츠 인재 양성이 시급한 때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부담 없이 재미와 흥미를 갖고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에너지를 불어 넣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스포츠 행위와 행사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체육인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체육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이사장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바탕으로 ‘신체와 정신 건강을 통한 행복 추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스포츠교육개발원은 올 한해 태권도대회, 전통무예대회, 줄넘기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신문사와 봉사단체를 조직할 계획이다. 또한 직영교육원 및 직영 스포츠문화센터를 설립해 더 많은 주민이 다양한 스포츠 교육과 문화와 복지 서비스 체험할 수 있게 할 계획도 세웠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맞춤형 스포츠와 복지·융합교육 개발, 인재 양성 등에 집중하고자 한다. 개발원의 플랫폼화를 통해 스포츠 인재 양성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실히 하여 스포츠분야 지도자들이 은퇴 후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봉사, 교육 등)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검과 함께 나누는 삶의 즐거움 - 연세검우회

연세검우회는 연세대학교 검도부인 '연세검도회'에서 활동했던 졸업들이 자연스럽게 가입해 활동하는 모임이다. 오랜 기간 검으로 정신과 신체를 단련하며 회원들 간의 돈독한 우애를 이어오고 있다.

글 편집실





40여 년을 이어온 연세검도회 OB들의 모임

연세대학교 검도회는 재학생 검도부, 졸업생이 모인 연세검우회, 교직원 검우회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연세검우회는 학교를 졸업한 연세검도회 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1981년 창단된 이후 현재 약 400여 명의 검우회원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연세검우회 회원들은 연세검도회 출신의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승인하면 자동으로 검우회원이 됩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검도회 출신의 졸업생은 모두 검우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도회 및 검우회의 지도 사범을 맡고 있는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문성빈 교수의 설명이다.

연세검우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토요일 오후 3시에 선릉역 근처의 자강검도관에 모여 마음과 신체를 단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학교 체육관이 폐쇄되어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검도회를 후원해 토요일 12시에 운동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검우회원들의 실력도 면면히 뛰어나 SBS 전국검도왕대회, 전국사회인검도대회, 서울시 회장기 춘추검도대회 등에 출전해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그 외에도 신년 하례식을 통해 새롭게 검우회원이 된 이들을 위한 환영회를 진행한다. 연말에는 이호암선생배 검도대회와 송년회를 함께 진행하며 친목을 다진다.

스승의 뜻을 이어 검과 함께 인생을 즐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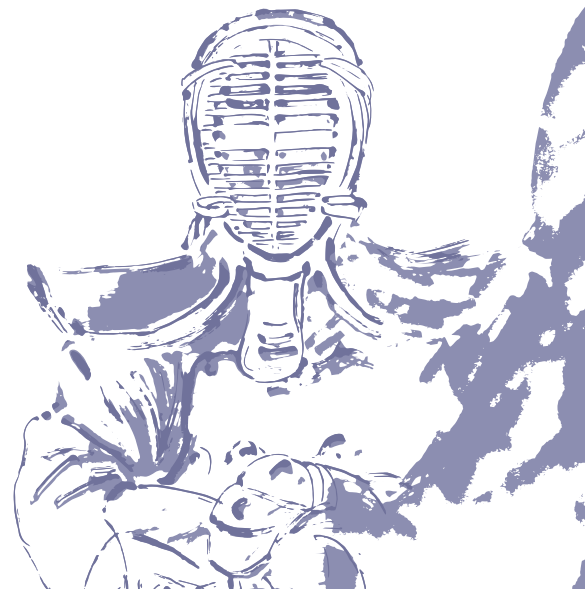
연세검우회의 뿌리인 연세검도회는 1975년故 이호암 선생이 만들었다. 대한검도회 공인 8단 범사였던 이호암 선생은, 연세검도부를 창설한 이후 지난 40년간 무보수로 후배들에게 검도를 지도했다.

그가 검도를 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겸검위락(兼劍爲樂)’이다. 이 말에는 검도 수련과 함께 자기 본분을 지켜야 검도를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선생은 이 말처럼 제자들이 검도를 통해 즐거움을 찾고, 학업 혹은 직장에서도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삶과 생활을 다져나가라고 가르쳤다.

검도회 및 검우회의 지도 사범을 맡고 있는 문성빈 교수는 이러한 이호암 선생의 뜻을 이어 검을 통해 자신의 심신을 단련하며 후배들에게도 그 정신을 전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검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문성빈 사범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검도를 시작해 학교 생활 내내 검도와 함께했다.

“당시에는 정말 거의 매일 검도를 했어요. 1학년 1학기 때 대학생활을 즐기느라 잠시 검도에 소홀했던 때도 있었는데 ‘대학생활에 질서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고 검도와 공부에 집중해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일까? 문 사범은 대학교 3학년 때 동호회 출신으로는 최초로 전국대학연맹전에 출전했고,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되기도 했다.





검을 통해 대나무와 같은 마음을 다지다

문성빈 사범은 검도의 매력으로 평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태권도나 유도도 있지만 제가 검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평생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나이가 65세인데 태권도나 유도를 하는 것은 힘들어요. 하지만 검도는 기술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평생 즐기며 할 수 있어요.”

문 사범은 검도의 장점으로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는 점을 꼽았다. 약 520g 가량의 죽도를 몸의 일부처럼 다루려면 무엇보다도 집중력이 필요하고, 검에 집중하기 위해 연습에 매진하다 보면 대나무 같이 바른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질 수 있다.

문성빈 사범은 앞으로도 검도회 지도와 검우회 활동을

이어가며 검우회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내에서의 수련을 넘어 검도 국제 교류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일본의 동경학연검우연합회와 ‘무자수행(武者修行)’을 진행한 바 있다.

문 사범과 함께 연세검우회는 이호암 선생의 가르침인 ‘검검위락’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검도에 임하고 있다. 더불어 검도를 함께 즐기는 진정한 친구로서 검우회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즐겁게 검도 생활을 즐기고 있다.

“우리 검우회 회원들이 검도를 통해 신체와 정신을 단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스승이라기보다는 검도를 함께하는 친구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



MINI INTERVIEW

“ 검도를 통해 나를 가다듬어요 ”

연세검우회 문성빈 사범

검도가 주는 힘은 굉장합니다. 심신단련에 매우 효과적이지요. 바쁜 가운데도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른다면 내 인생을 더욱 잘 가꾸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검도를 통해 좋은 롤모델이 되어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틈틈이 같이 운동하면서 평생 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INFORMATION

연 세 검 우 회

동호회 조직일 1981년

동호인 수 400여 명

참여 연령대와 모임 주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토요일 오후 3시

대회 및 연례활동 신년 하례식, 호암배 대회 및 송년회, 다수의 사회인 대회

온라인 활동 <https://www.facebook.com/groups/yonkum/?ref=sharei>



허윤서 선수의 수영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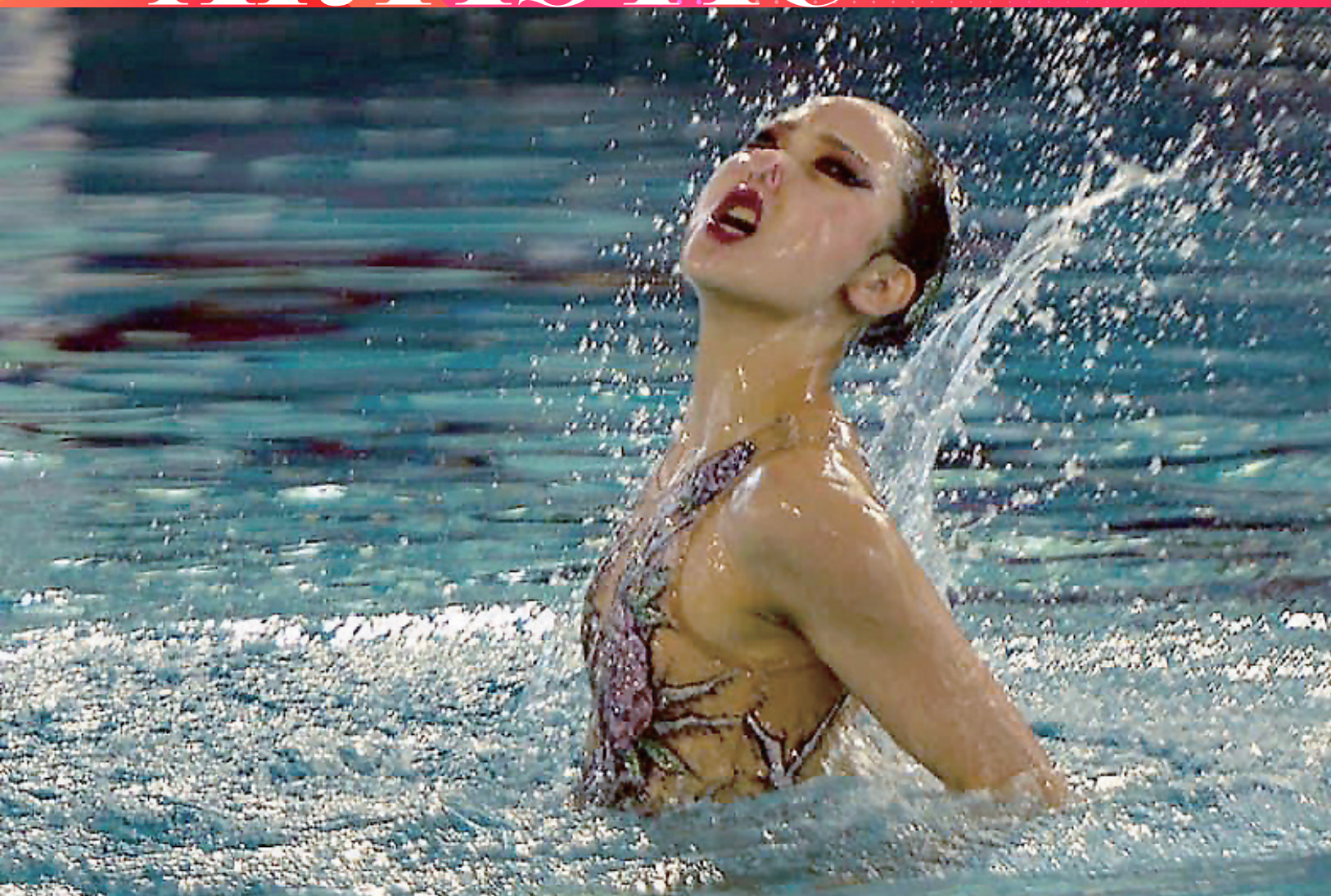


〇〇

이 수영복은 제가 세계유스선수권 때 입었던 수영복인데요.
어둠의 여신을 주제로 해서 늑대 손잡이 모양의 칼이 그려져 있어요.
많은 사진기자분들에게 극찬받기도 해서 더욱 기억에 남는 수영복이죠.
게다가 음악과 안무 등 전반적인 작품에 잘 어울려 제 메달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〇〇

ARTIS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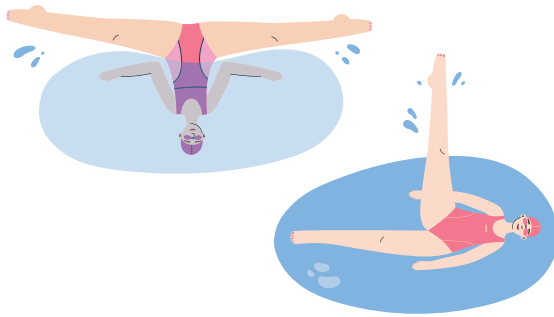
SWIMMING

우리나라에서는 수중발레라는 이름으로, 2016년까지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아티스틱스위밍은 수면 위와 수면 아래를 아우르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종합 예술이다. 아름다운 동작을 위해 오래 인내하고, 크게 힘써야 하는 종목이기도 한 아티스틱스위밍에서 우리나라 허윤서 선수가 주목받고 있다.

글 편집실

수면 아래에서 인내하고, 수면 위로 박차 오르며 연기하다

압구정고등학교 허윤서 선수



수면 위에서는 우아하게, 수면 아래에서는 치열하게

수면 위로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뿐이지만, 수면 아래는 치열하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선수의 표정은 작품에 빠져든 듯 환하게 웃고 있거나 슬픔에 취해 있거나 독하게 노려본다. 그러나 물속에서는 오랜 연습을 통해 얻은 엄청난 폐활량으로 숨을 참고, 부력을 이용하면서도 이겨내며 동작을 취해야 한다.

수영과 발레, 연기, 그 밖에도 음악, 수영복, 화장 등의 조화가 이루어져 한 작품이 재생된다. 그래서 이 종목의 이름이 아티스틱스위밍이다. 기존의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이라는 이름에서 바뀐 이유 역시 이 종목의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낯설고도 아름다운 종목, 아티스틱스위밍에서 예술적인 움직임을 선보이는 우리나라 선수가 있다. 국내대회에서는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 없었던 이 선수는 최연소 아티스틱스위밍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었고, 제1회 세계유스아티스틱수영챔피언십 대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5위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국제무대에서도 자신만만 모습을 보였다.

〇〇

국제대회에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실력을 보니
걱정되는 마음이 더 앞섰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모인 자리는 역시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성적을 받게 되어서 기뻐합니다.

〇〇

허윤서 선수를 위해 생겨난 듯한

아티스틱스위밍 종목

허윤서 선수는 두 살 때부터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고, 여섯 살이 되자 수영을 배웠다. 유난히도 팔다리가 길어 같은 동작을 해도 눈에 띄었고, 물을 좋아했던 허윤서 선수. 마치 허윤서 선수를 위해 아티스틱스위밍이라는 종목이 생겨난 것만 같았다. 허윤서 선수는 아직도 8살 때, 아티스틱스위밍을 배웠던 첫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처음으로 아티스틱스위밍을 배우러 갔는데, 종목 특성상 5m 수심의 수영장에서 배웠거든요. 수영장 바닥에 뭐가 있을까 싶은 호기심이 생겼던 것이 기억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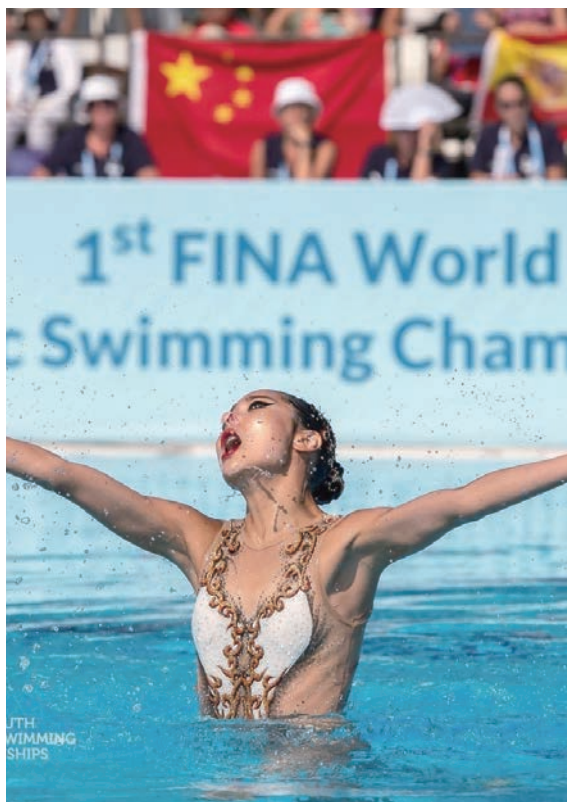
재능과 흥미가 더해진 결과였을까. 허윤서 선수는 아티스틱스위밍을 시작하고 나서 남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술을 익혀갔다. 기존에 해오던 발레와 수영도 아티스틱스위밍을 배우고자 하는 허윤서 선수의 탄탄한 기본기가 되어주었다.



“숨 참는 것이 힘들긴 한데요, 아티스틱스위밍을 하면서 재밌고 즐거운 마음은 변함없어요.”

허윤서 선수가 아티스틱스위밍을 사랑하는 데에는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아티스틱스위밍이 기술과 예술이 더해진 스포츠, 종합예술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훈련 역시도 다방면으로 행해진다. 수영 훈련은 물론 근육 훈련도 필요하고, 유연성을 위해 리듬체조나 필라테스도 한다.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표정 연기도 필요하다. 허윤서 선수는 물 밖에서는 선하고, 순진무구한 얼굴이지만, 연기할 때만큼은 강렬한 표정으로 카리스마를 보여주곤 한다. 이 역시 그가 끊임없이 거울을 보고 연습한 결과다.

“처음에는 표정 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물 밖에서는 힘들 없이 감정만 느껴져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뱀을 표현하고자 하면, 심판이 제 연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말 뱀 같아야 해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때까지 무조건 노력하는 끈기로

아티스틱스위밍은 동작마다 난이도가 다르기도 하지만, 물 밖에 신체가 더 많이 나올수록 더 많은 점수를 받는다. ‘부스트’라는 동작을 살펴보면, 물속에서 점프해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이 힘에 따라 상체 일부가 물 밖으로 나온다. 다만 실력에 따라 허리까지 튀어나오는 선수가 있고, 엉덩이까지 튀어나오는 선수가 있다. 허윤서 선수는 부스트에서 높은 수위를 자랑하며 그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제1회 세계유스아티스틱스위밍챔피언십 대회에서도 큰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이다. 어린 나이에 뛰어난 연기와 기술을 선보이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허윤서 선수이지만 연습 첫 날, 그 역시 다른 선수들의 실력에 놀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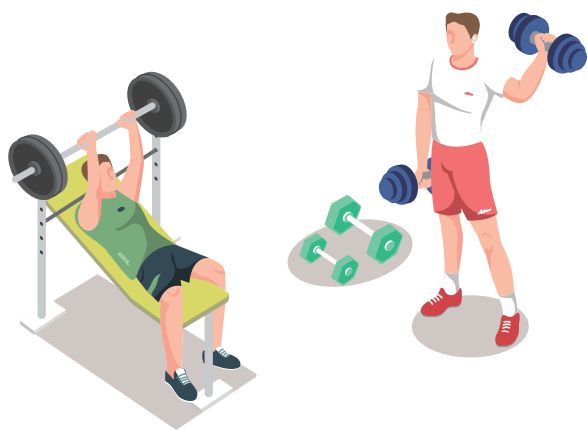
“국제대회에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실력을 보니 걱정되는 마음이 더 앞섰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모인 자리는 역시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성적을 받게 되어서 기뻐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취재에 임하고 있습니다.



허윤서 선수는 이 대회 이후 아시아 랭킹 1위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허윤서 선수는 8살부터 국가대표 하나만을 목표로 달려왔다. 그러자 중학교 2학년 때 치러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중학교 3학년 때 발탁되어 최연소 아티스틱스위밍 국가대표로 태극기를 가슴에 달 수 있었다. 꿈을 이루자 허윤서 선수의 목표는 한 단계 더 높아졌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권에 오르고, 이를 발판 삼아 파리 올림픽에서 결선에 진출하는 것이다. 이로써 비인기 종목인 아티스틱스위밍을 한국에 널리 알리는 것도 그의 꿈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하나의 목표가 생겼다. “제 롤모델이 크리스틴 라가르드입니다. 프랑스 아티스틱스위밍 국가대표였는데, 이후에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역임하기도 한 분이거든요. 저도 아티스틱스위밍 선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계에서 여성 지도자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싶어서 IOC 위원이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허윤서 선수는 자신의 장점으로 ‘목표가 있으면, 이를 때까지 무조건 노력하는 끈기’를 꼽았다. 국가대표라는 꿈을 이룬 것처럼, 메달리스트와 IOC 위원이라는 꿈 역시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



체육 중점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다

인천송도고등학교



*대한체육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취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송도고등학교는 2016년부터 체육 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을 통해, 우수한 체육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 직업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글 편집실



역사와 전통을 갖춘 학교, 체대 입시에 대해 고민

송도고등학교는 1906년 개성에서 윤치호 선생이 문을 연 명문학원이다, 개교 후 11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으로 인한 피난 개교 등 어려움 속에서도 인재 양성이라는 소명을 실천하며 지금, 대한민국의 인재 양성 요람으로 우뚝 섰다. ‘과학중점학교’, ‘사회중점학교’, ‘IT중점학교’, ‘인공지능(AI) 선도학교’ 등을 운영하며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송도고는 2016년부터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로 미래 체육을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송도고가 체육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체대 입시의 준비가 대부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과 그러한 사교육을 위한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우려해 체육특성화 교육과정에 참여했다.

“한 달에 50만 원이 훌쩍 넘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체육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송도고 이동훈 교사의 말이다. 이에 송도고는 2016년부터 체육중점학교급을 운영하며 선행학습 예방 및 비교육적 입시 부작용을 줄이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교육 정상화를 구축하는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체육 관련 진로 희망에 지원

송도고의 체육특성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업의 다양화와 더욱 전문화되는 사회에서 체육과 관련된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체육 과목에 편중되지 않고, 기본 교육과정 이수에 중점을 둔다. 둘째, 학교생활 탈피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진로 진학을 위한 체육 수업에 중점을 둔다. 셋째, 체육만을 위한 진로 진학이 아니라, 체육을 기반으로 하는 진로진학지도에 중점을 둔다. 넷째,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 체육활동을 권장하는데 중점을 둔다’를 기본 운영 방침으로 정하고 실천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스포츠 관련 체험교육활동을 통해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체육 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탄력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내신 산출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계 학생과는 별도로 내신을 산출하며,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체력·기능적 능력과 적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다양한 체육계열 학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에 대해 정확하고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후회 없는 진로선택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동훈 교사의 설명이다.

대학별 맞춤형 기초체력 단련 및 다양한 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송도고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실기고사에 대비해 기초 체력 및 실기 종목을 체계적으로 경험하고,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기초 체력 및 다양한 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체육체험 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교에 마련된 중점학급 전용체력단련실을 최대한 활용해 기초 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체육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 중이다.


전용체력단련실 외에도 실질적인 실기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학급 입시용 실기도구를 확보해 기초체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체육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상담 및 체력 테스트가 함께 진행된다. 상담과 체력 테스트를 통해 학생의 목표 설정을 돕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더욱 잘 다가설 수 있도록 돕는다.

실기 과정은 전문적인 수업운영을 위해 전문실기 강사를 초빙해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준별 전공수업을 진행하고, 1인 1특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실력을 향상시킨다.

예·체능 대입 실기를 경험한 선배들과 1:1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있다. 3학년 중점으로 정규수업과 방과 후 및 토요스포츠클럽을 활용해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지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된 최근에는 소규모 단위의 교육활동 운영, 한 단계 높은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 질 높은 체육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이동훈 교사는 “송도고등학교는 앞으로도 체육의 기초 공통 교육 내용에 대한 중점교육을 통해 창의와 배려, 조화를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이 체육 분야의 미래지향적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연간 운영 계획



월	운영 내용
2월	입시분석, 학생 가정환경, 신상파악
	성적 파악 및 학부모 상담
3월	기초체력 훈련
	상담 및 체력 점검
4월	기초체력 훈련
	상담 및 체력 점검
5월	근력 강화 훈련
	상담 및 체력 테스트
6월	근력 강화 훈련
	상담 및 체력 테스트
7월	구기운동(메디슨볼, 블라디테스트)
	체력테스트 경진대회
8월	운동체육특기자 대학 수시 성적 파악 및 학무모 상담
	구기운동(농구, 배구) 체조 운동
9월	맞춤형 개인별 훈련(기초체력)
	맞춤형 개인별 훈련(근력, 구기)
10월	맞춤형 개인별 훈련(기초체력)
	맞춤형 개인별 훈련(근력, 구기)
11·12월	상담 대학 선택
	맞춤형 실기 테스트
	가,나,다 군에 맞는 실기 선택



힙합과 발레의 이유 있는 만남, **힙레(Hip-let)**

2016년, 한 무용수가 SNS에 올린 춤 동영상은 짧은 시간 7,000만 조회 수를 돌파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발레리나들이 힙합 음악에 맞춰 발레를 추는 영상이었다. 고전 발레와 현대 힙합이 만나 탄생한 ‘힙레(hip-let)’는 그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인하게 각인되었다. 그리고 세계인이 즐기는 새로운 장르의 운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글 편집실





Hip-let

자유와 통념을 깨는 몸짓, 힙레의 탄생!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 종목을 결합한 퓨전 운동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효과는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 체형 교정과 체중 감량,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상당히 때문이다.

이종(異種)의 결합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힙합과 발레는 특징이 아주 다르다. 그런데 이 두 춤이 만나 탄생한 춤이 있다. ‘힙레(Hip-let)’는 2009년 미국의 무용수 호머 한스 브라이언트가 개발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힙합과 발레를 조합했다. 발끝으로 서는 발레 동작을 기본으로 하지만 몸짓은 자유롭다.

힙레는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장르지만 역사는 짧지 않다. 호머 한스 브라이언트는 백인 중심의 발레를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1990년대 랩 음악에 맞춰 추는 발레인 ‘랩 발레’를 고안했다. 이후 ‘힙합 - 랩 발레’ 장르로 이어지다가 2009년에 ‘힙레’라는 정식 명칭을 얻었다.

힙레를 즐기는 이들은 이 독특한 춤이 지닌 매력을 크게 3가지로 꼽는다. 관능과 다양성, 자존감이다. 누구나 있는 그대로 모습을 인정하는 포용력은 힙레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백인, 유럽 위주의 발레와 달리 인종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출 수 있다는 점은 힙레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핫한 다이어트 운동으로도 큰 관심!

최근 힙레의 인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 가고 있다. 우아하고 수려한 움직임의 발레와 강렬하고 비트감 있는 힙합의 만남은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경험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 발레리나처럼 춤을 잘 추지 못해도 비트에 맞춰 스스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자신만의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준다. 힙레는 핫한 다이어트 운동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온몸을 이용해 크고 굴곡진 곡선을 만드는 과정은 다른 무용이나 운동보다 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운동은 허리에 좋은 동작, 어깨에 좋은 동작 등을 구분하지만 힙레는 온몸을 써야 해 에너지 소모가 더 많다.

아쉬운 것은 아직 국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힙레를 즐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튜브 동영상 통해 배우고, 서로의 춤을 공유한다. 힙레가 모든 이를 위한 발레에 뿌리를 두고 있듯,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힙레 정규 프로그램을 쉽게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발레의 또 다른 변신, 발레핏

발레핏은 발레와 피트니스를 결합한 운동이다. 정통 발레에 각종 스트레칭 또는 필라테스 동작을 섞은 프로그램 등이 기본이다. 근육을 길고 가늘게 가꾸고, 근력을 향상시키며 체형 교정에 도움이 된다.

발레 스트레칭은 체형 교정에 효과적이고, 필라테스처럼 링·밴드·볼 등 소도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근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발레 점프 동작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은 유산소 운동 효과가 크다.

스포츠 '월클 스타'들이 전하는 웃음과 감동!



66

진짜 강한 선수들인데 순수하게 체험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네요.

99

- 구독자 000

66

레슬링부터 무에타이, 시스테마, 태권까지 많은 무술을 직접 체험하며 기술들을 배우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99

- 구독자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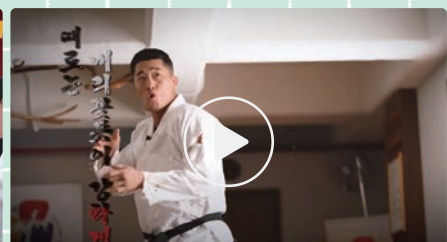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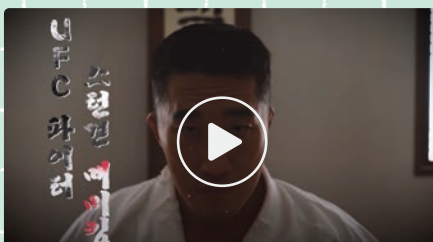
월클 스포츠 스타의 진심! 모든 종목은 위대하다 매미킴 TV

한국인 최초 UFC 진출 선수, UFC 한국인 최다승 등은 격투기 선수 김동현이 세운 기록이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비추며 특유의 순수함과 우직함으로 큰 웃음을 선사하고 있지만, 월클 선수로서 진면목을 볼 수 없어 팬들로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매미킴TV'라면 격투기 선수와 방송인으로서 김동현의 매력을 모두 느낄 수 있다. 매미킴TV는 약 6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300여 개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격투기 관련 기술 배울 수 있는 건 기본, 올바른 생활 속 운동법,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상에 대처하는 법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종목을 체험하고 겨뤄보는 '도장 깨기' 시리즈, 종합격투기 현역선수들의 일상을 다룬 콘텐츠 등도 인기가 높다.



▲
바로보기

QR 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스포츠 '월클(월드클래스) 스타'들이 운영하는 채널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TV에서는 볼 수 없었던 스타들의 소소한 일상과 진솔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간단한 팁 등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UFC 김동현 선수와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윤기 선수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자.

글 편집실



스포츠텔러, '쇼트트랙 연구가' 박윤기입니다 꼭잡아윤기-Kwakyoon-gy

박윤기 선수는 세 번의 올림픽에 출전해 두 개의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는 국가대표 만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후배 선수들을 이끌며 남자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내는 데 앞장섰다. 박윤기는 2019년 4월, 유튜브를 시작해 3년여 만에 구독자 110만을 보유한 유튜버가 됐다. 타고난 끼와 진솔함이 밑바탕이었지만, 월클 선수로서 박윤기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스포츠 정신이 무엇보다 큰 원동력이 됐다. 쇼트트랙의 기술·비밀 등 종목의 궁금증을 이야기해주는 '쇼트트랙 SSUL', 올림픽 선수들의 엄청난 기량을 볼 수 있는 퍼포먼스 콘텐츠 '꼭잡아국대', 선수들의 이색 몰래카메라 '꼭잡아 몰카', 쇼트트랙 경기 리뷰 및 해설 '꼭잡아 해설'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66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박윤기 선수 당신이 최고예요! 후배들 잘 이끌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빙상체육계를 멋지게 리드해주세요! 대한민국 박윤기 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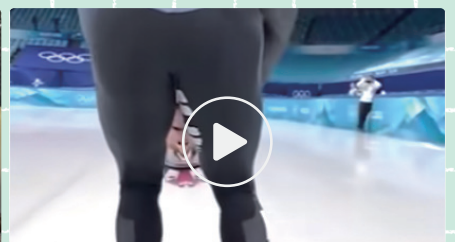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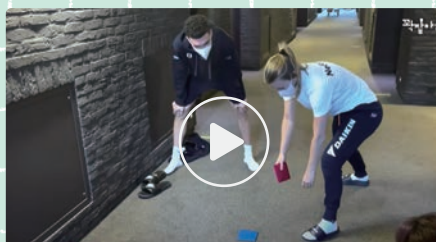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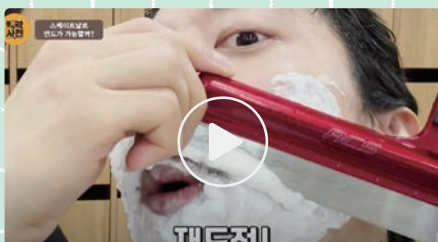
99

- 구독자 000



바로보기

QR 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 노출이 되었어도 어떤 이는 감기에 걸리고, 어떤 이는 멀쩡하다.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에 전염되는데 면역력이 약할수록 자주 걸리고,
오래 간다. 면역력은 무엇일까? 면역력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글 편집실

또 감기야?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



면역, 넌 누구니?

면역이란 병원체인 항원(감염, 질병 등)에 대하여 죽이거나 무력화하는 작용을 말한다. 즉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침투한 유해한 항원을 방어하는 현상이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나 염증질환 등에 걸리기 쉽다.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 면역과 감염이나 예방접종 등을 통해 얻는 후천 면역으로 나뉜다. 선천 면역은 외부 자극이나 기존 감염 없이 유전자 구성으로 인해 존재하는데,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오면 즉시 반응해 몸을 보호해준다. 선천면역 체계는 피부, 점액조직, 혈액, 위산 등에 존재한다. 반면 후천 면역은 백신 접종 등을 통해 생성되거나, 병원체에 대응하면서 학습과 기억을 통해 또 다시 같은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반응한다.

면역력 저하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다양한 증상을 일으켜 신호를 보낸다. 대표적인 면역력 저하 증상이 염증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면역 체계에서 걸러지지 않아 몸에 쉽게 침투하면서 염증 질환이 유발된다. 입 주변에 나는 헤르페스성 구내염이나 입 안에 나는 구내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상포진도 면역력이 저하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다. 물집, 발진, 통증 등을 유발하며 드물게는 두통, 발열 등의 전신증상을 동반한다. 대상포진은 이미 우리 몸에 존재하며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를 틈타 증식하면서 나타난다.

면역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

면역력은 날씨, 체온과 관계가 있다? Yes

우리 몸은 체온이 36.5~37℃일 때 활성화되는데 추운 날씨로 인해 체온이 낮아지면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날씨가 추워질수록 평소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을 들여 꾸준히 건강관리에 힘쓰는 것이 좋다.



일교차가 클수록 체온 유지에 유의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2~5배 높아진다는 말이 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교차가 클수록 적정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한다. 모자·장갑 등을 가방에 챙겨 온도가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착용해 체온을 유지한다.



마시는 물, 먹는 음식도 따뜻하게

소화기관을 포함한 우리 몸 내부 장기는 따뜻할 때 가장 잘 활성화된다. 차가운 음식은 체내 온도를 떨어뜨려 장기의 기능과 체내 순환력을 떨어뜨려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특히 날씨가 쌀쌀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열을 보충할 수 있는 따뜻한 음식, 따뜻한 물을 먹거나 마시는 것이 좋다.



체온 올리고 노폐물 배출시키는 운동하기


운동은 체온을 가장 건강하게 올리는 방법이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체온을 올리고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시킨다. 다만 추운 날씨는 근육을 긴장시키기 때문에 운동 중 부상을 입지 않으려면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야 한다.

흡연과 잦은 음주는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Yes

흡연은 직접뿐 아니라 간접흡연도 피해야 한다. 담배 속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물질들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손상시켜 항체 생성에 악영향을 준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경우 비흡자자에 비해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NK 세포가 20% 가량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담배 역시 면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폭음과 잦은 음주 역시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미국 로올라대학 의과대학에서는 폭음 직후에는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어 술을 먹지 않은 상태보다 더 무기력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항생제 남용이 면역력에도 영향을 준다? Yes

항생제 남용은 우리 몸의 자가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면역력이 저하되면 더 쉽게 병에 걸리고, 다시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카이스트 연구진은 각종 항생제를 남용하면 인체 내 공생미생물의 불균형을 초래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어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공생미생물은 우리 몸에 상재하는 다양한 미생물의 군집으로, 우리 몸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특산물인 한라봉.
 봉긋 솟아 오른 생김새까지 영락없이 한라산을 닮아
 'Made in Jeju'임을 뽐낸다. 한라봉은 껍질보다 알갱
 이가 커 입 안에서 툭툭 터지는 식감도 재미있지만
 새콤달콤한 그 맛은 제철을 맞은 겨울과 초봄의 경
 계선인 이 맘 때쯤이면 절로 생각이 난다. 뿐만 아니
 라 감기 예방은 물론 눈 건강, 노화방지, 피로 해소
 등에도 효과적이다.

글 편집실

찬바람 속 찾아온
 봄 햇살 같은 상큼함

한라봉





새콤달콤, 탕글탕글함 오래 즐기기, 한라봉청 만들기

콜리플라워 효능



감기야 물러가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 나는 환절기엔 자칫 감기에 걸리기 쉽다. 한라봉에 풍부한 비타민C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향상시켜 감기나 바이러스 질병 등을 예방한다.



혈관을 부탁해!

한라봉 속껍질에 함유된 헤스페리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줘 동맥 경화, 고혈압, 뇌졸중 같은 혈관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토끼눈은 그만!

한라봉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예방해 준다. 또한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고 야맹증 예방에도 탁월하다.

재료 준비

주재료

한라봉 과육 500g, 설탕 500g

조리 순서

- ① 소금 또는 베이킹소다로 한라봉 껍질을 문질러 농약을 제거한다.
- ② 한라봉 껍질을 벗긴 뒤 과육을 잘게 잘라준다.
- ③ 넓은 불에 한라봉 과육과 설탕을 1:1 비율로 담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골고루 섞어준다.
- ④ 열탕소독한 유리병을 준비해 ③을 담아준다.
- ⑤ 병 입구는 여분의 설탕으로 채운 뒤 뚜껑을 닫아준다.
- ⑥ 완성한 한라봉청은 실온에서 하루 보관한 뒤 냉장보관 3일째부터 먹을 수 있다.

달리의 한마디

한라봉은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두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감기를 달고 산다면, 지금 제철을 맞은 한라봉을 곁에 두세요. 한라봉은 비타민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이밖에도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는 비타민 A, 지방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막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비타민 P 성분도 함유하고 있죠. 또한 노란색 채소와 과일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체내 유해 물질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고,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는 등 노화 예방에 탁월하며, 한라봉의 비타민 C와 비타민 E 성분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노화 예방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라봉 껍질은 항암 효과가 우수한 리모넨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깨끗이 세척 후 껍질을 차로 우려내어 먹는다면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문제 해결 Tip!

1번 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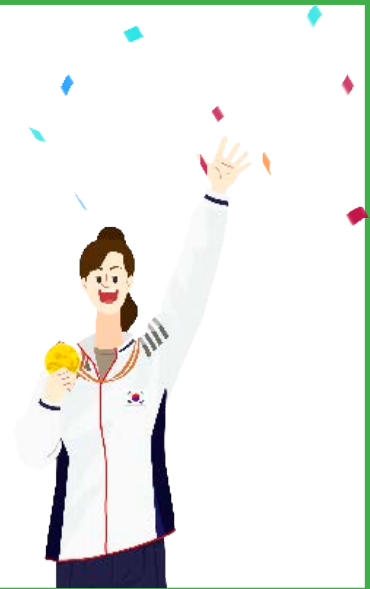
[4번 문제를 읽으면 답이 보인다]

이름만으로도 소속감과 애국심을 갖게 되는, 동·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의 공식 명칭이다..

4번 힌트

[이 약자의 영어 풀네임은 'Non Fungible Token'이다]

말 그대로 대체불가능한토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등기권리증이라고도 불린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QR코드 스캔 후 퀴즈 정답을
제출해주세요.

퀴즈 정답을 맞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3월 중으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2022년 2월호 정답 제출 마감일:
2022년 3월 10일)

[1월 KSOC 모의고사 당첨자]

이*형(2777)	이*영(7172)
박*민(9140)	강*영(3229)
박*희(4115)	임*지(0628)
최*솔(8009)	최*재(0695)
채*진(3527)	이*연(4240)

SPORTS1 NEWS

대한체육회

제8차 이사회 개최,
전국체육대회 개최 종목 12년 만에 확대



지난 1월 24일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대한체육회 제8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1년 대한체육회 사업결과 및 결산,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대회운영 방식 변경,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 채택, 신규 회원종목단체 가입 승인, 정관개정 등 5개 규정 개정 등을 의결했다.

먼저 2021년 대한체육회 사업결과 및 결산에 대해 심의하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종목단체인 '대한체스연맹'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준회원단체로 승인했다. 또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회운영 방식을 올해에 한해 종목별 자율적 분산개최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전국체전을 개최한 시도에서 차차기연도에 대축전을 개최해야 하는데,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전국체전이 순연되면서 2022년 대축전 개최지가 없게 되어 이를 자율적 분산개최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전국체육대회 개최 종목을 12년 만에 확대했다. 2009년 산악, 댄스스포츠, 태권 종목을 시범종목으로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합기도, 족구를 시범종목으로 채택했다. 시도별 경기가맹단체 구성 비율, 최근 3년 간 등록선수 중 전국규모대회 참가실적, 19세이하부와 대학부, 일반부의 연계성, 전국체육대회 기념대회 개최여부 등을 고려했다. 다만 시도체육회가 예산지원이 가능할 때까지 협회가 자체 부담하고, 족구는 올 3월까지 전국체육대회 기념대회를 개최하는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 채택으로 각 종목의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환경 조성과 종목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스포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국체육대회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체육회는 정관 등 5개 규정 개정과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쇼트트랙 대표팀에 문재인 대통령 축전 전달



대한체육회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 선수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2월 17일, 여자 쇼트트랙 1500m에서 압도적인 레이스로 2연패를 이룬 최민정에게 축전을 통해 "해낼 줄 알았다. 과연 최민정"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마지막 레이스까지 모든 힘을 쏟아 낸 최민정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올림픽 무대에서만 벌써 다섯 개의 메달을 획득한 '살아 있는 전설'이 됐다. 두려움 없는 도전과 땀방울이 다음 올림픽으로도 이어져 더 멋진 길을 열어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에서 당당히 은메달을 딴 박관용-김동욱-황대한-이준서-박창혁에게도 일일이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각각의 선수들에게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 은메달을 축하한다. 2010년 밴쿠버대회 이후 12년 만의 남자 계주 은메달의 쾌거이고, 최고의 호흡과 최강의 기량을 자랑하는 우리 선수들의 '원팀' 정신이 큰 성취로 이어져 참으로 기쁘다. 국민들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을 것"이라고 찬사와 격려를 보냈다.

이기흥 회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을 선수들에게 직접 전달했고, 윤홍근 선수단장(대한빙상연맹 회장)은 마스크로 인형을 선물하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전달식 후 이기흥 회장은 대회 막바지에 접어든 우리 선수단의 상황을 점검하고, 귀국 시까지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메타버스 활용한 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교육 개최

2월 15일 14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방식의 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오픈 예정인 '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시스템 구축 결과 및 변동 사항

을 안내하고, 개정된 경기인 등록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메타버스 형식으로 실시되어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유도했다. 교육 대상은 경기인 등록 또는 실적관리 등의 유관업무 직원 및 체육정보화, 스포츠 정보통신기술 등에 관심을 가진 체육단체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은 체육계 혁신안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등록, 체육인 생애주기의 전반적인 이력 관리 기반 마련, 정보서비스별 회원 정보 통합 등을 위해 2021년에 구축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교육 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 2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하여 체육인 대상 정보서비스 제공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기흥 체육회장, 바흐 IOC 위원장과 면담



이기흥 회장은 2월 14일 IOC본부호텔에서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과 만나 40분간 면담을 나눴다. 이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베이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과 제임스 맥클레어드 NOC 담당 국장을 만나 이번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및 앞으로 IOC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기간 중 폐쇄루프를 운영하여 루프 내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고, 더불어 대한민국 선수단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바흐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선수단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 기관장은 올해 10월 중순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ANOC총회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10개 후원사에 감사 인사 전달

대한체육회는 2월 16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베이징동계올림픽 국가대표들을 물심양면 후원한 공식 후원사들에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0개의 공식후원사들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 기간 내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위한 지원과 응원 마케팅에 앞장섰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팬데믹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올림픽임에도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올림픽 마케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선수단 공식 후원사들은 선수들의 선전과 감동의 순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대한체육회는 10개 후원사의 후원 내용과 공적도 일일이 언급했다.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6명 선임



대한체육회 및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 활동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원·경찰·공기업 출신의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6명을 선임했다.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박동균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이승찬 전 한국자산관리공사·비서실장, 이재호 전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윤리경영지원 본부장·딜로이트코리아 상임고문, 정남식 전 감사원 수석감사관, 최종덕 전 서초경찰서장·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 한태일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본부장·감사실장 등 총 6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 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를 시작으로 2년간 대한체육회 및 회원단체(시도체육회 및 종목단체)에 대한 감사 활동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민간 전문가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통해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율적 참여로 깨끗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PORTS1 NEWS

시도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공모 33개소 선정



전라남도체육회는 올해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 공모에 33개소가 선정돼 5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한다.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2022년도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 대상에서 장흥과 나주(이상 7개소), 강진(5개소), 영암(3개소) 등 8개 시·군에서 3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전남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에서 2020년 32개소, 2021년 34개소 등이 선정된 바 있다. 특히 나주는 나주시체육회 운영 7개소와 나주스포츠클럽 운영 4개소 등 총 11개소(2022년도 7개소)가 선정돼 학교체육시설 활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선정된 33개소에는 1개소당 2,500여만 원, 총 8억여 원의 사업비를 교부받는다.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창립 10주년 댓글 이벤트 진행



세종시체육회가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10주년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종시체육회는 지난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직후인 그해 7월 10일 대한체육회 제21차 이사회에서 제17번째 지부로 승인받아 정식 출범해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10주년 댓글 이벤트는 체육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행사 기간 내 세종시체육회 기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팔로우 하고, 세종시체육회 10주년을 축하하는 댓글만 게시하면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이벤트 참가자 중 4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으로, 당첨자는 오는 3월 2일에 발표한다.

대전광역시체육회

2022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대전시체육회는 지난 10일 36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 주요 안건은 2021년도 사업성과 및 2022년 역점사업, 2022년도 예산 성립 전 잠정집행 예산 편성 결과, 통합 제4대 임원변동 사항 등 3건의 보고사항과 2021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통합 제4대 임원보선 등 9건의 심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전광역시체육회는 2022년도 예산 300억 시대를 맞았다. 대전시, 대전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회장출연금, 대전체육발전기금 조성, 대한체육회 공모사업 확대 등 재원의 다변화를 통해 지난해보다 18.7% 증액된 312억5천7백만 원을 확정했다. 이사회에서는 대전체육발전기금 조성규모 확대, 꿈드림프로젝트 등 회장출연금사업의 확대 운

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전형, 종합형,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회원종목 단체 선진화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 전문체육 경쟁력 제고와 관내 우수선수 타시도 유출방지를 위한 팀창단, 국제세팍타크로대회 개최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지원 등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했다.

울산광역시체육회

울산대 운동부에 훈련용품 지원



울산시체육회는 1월 6일 울산지역 축구·테니스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울산대학교 축구부와 테니스부에 1,000만 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전달했다. 울산시체육회 김석기 회장은 이날 울산대학교를 찾아 이재기 울산대 교학부총장에게 훈련용 마네킹 18개와 접이식 골대 8개 등 500만 원 상당의 축구용품과 테니스공 1,500개 등 500만 원 상당의 테니스용품을 전달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울산대 테니스부는 국가대표 사령탑을 지낸 김재식 감독의 지도로 지난해 3월 열린 전국종별테니스대회 2년 연속 우승을 일구는 등 대학 최강팀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축구부는 과거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와 전국체전 우승, 2021년 대학축구 U리그 영남권 2위 등 대학축구 강호로, 서효원 대한축구협회(KFA) 전임지도자 겸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을 사령탑으로 선임해 과거의 명성 회복에 나서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제1기 부산스포츠 기자단' 운영



부산시체육회는 2월 16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제1기 부산 스포츠 기자단'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은 부산스포츠기자단 위촉장 수여, 운영 물품지급 및 주요 활동과 역할 등에 대한 설명과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제1기 부산 스포츠 기자단'은 스포츠 현장 취재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부산시민과 체육인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전달 등 부산체육의 홍보와 서포터즈 역할을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 해 연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부산시체육회는 부산스포츠기자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운영 중인 SNS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사 작성, 사진 촬영 및 편집 등의 홍보역량을 키우면서 콘텐츠 제작·배포로 다양한 체육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체육회

이사회·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광주시체육회가 2월 10일 오후 2시와 4시 북구 소재 웨딩홀에서 제4차 이사회와 2022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체육회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대면 회의 개최를 연기해 왔으나, 지난해 사업결산,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의결 등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안건처리를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광아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시체육회 임원 30여 명이 참석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 대의원 50여 명이 참석해 2021년도 사업보고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 개정, 감사 선임 등 안건을 처리했다.

SPORTS1 NEWS

회원종목단체

대한배드민턴협회

2022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2월 17일 데케이호텔에서 2022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총회에서 올해 3월 출시를 목표로 지난 1년간 개발 중인 배드민턴 데이터 플랫폼 로켓(Rocket)을 대의원들에게 선보였다. 플랫폼 출시를 통해 통합 랭킹시스템 구축,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 선수들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생활체육대회 운영의 편리성, 동호인들의 배드민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전국생활체육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으며,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하여 시행하는 '승강제 리그'와 '연예인동호회리그' 사업에 참여하여 배드민턴 보급 및 저변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심의를 진행했다. 총회 개최 후 개최한 2022 대한배드민턴협회 표창식에서는 2021년 최우수단체 및 최우수선수를 비롯한 공로 및 감사 등에 대한 표창식을 시행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항정우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 공개 모집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오는 9월 열리는 '제19회 하계아시아경기 대회 야구 국가대표 지도자'를 공개 모집했다. 서류 접수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16일 오후 3시까지였으며, 서류 심사 후 2월 17일 이후 경기력향상 위원회를 열어 지원자들의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회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감독 최종 후보를 정해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요청한다. 대한체육회가 승인하면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이 끝난다.

최종 선발된 지도자는 국내 강화훈련을 포함한 대회 파견기간 동안 국가대표 선수단을 이끌게 된다.

자격 요건은 협회 또는 KBO로부터 일정기간 지도 경력을 인정받은 지도자 라면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학교 폭력,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국가대표 감독, 코치에 지원할 수 없다.

대한씨름협회·거제시

거제장사씨름대회 협약식



대한씨름협회는 거제시와 지난 2월 9일 거제시청 시장실에서 '위드스제약 2022 평화의 도시 거제, 거제장사씨름대회'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변광용 시장과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 김한중 거제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황경수 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거제시와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해 앞으로 있을 대회 개최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당구연맹

2022 KBF 디비전 클럽팀 챔피언십 개최



대한당구연맹이 2월 19일부터 '2022 KBF 디비전 클럽팀 챔피언십(이하 클럽팀 챔피언십)'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디비전 리그에 참여한 팀들을 대상으로 최강팀을 선발하는 게 목표다.

이번 대회는 권역별 예선으로 먼저 치러졌다. 2월 19일부터 이틀에 걸쳐 6개(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 대표 구장에서 진행했다. 캐롬 3쿠션의 경우 권역별로 배분된 시드 수에 따라 본선 진출자가 가려지며 본선은 수도권 방송 스튜디오에서 2월 26~27일 2일간 진행한다.

포켓 9볼은 2개 권역(수도권, 영남권)에서 예선전을 거쳐 수도권 구장에서 8강 본선 대결을 펼친다. 권역별로 진행되는 예선 캐롬 3쿠션은 3인이 1팀으로 진행 되는 단체전 경기로 진행되며 토너먼트 방식이다. 팀원 구성은 디비전 리그를 활동한 동일 팀 내에서 가능하다. 포켓 9볼의 경우 개인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탁구협회장, IOC 선수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임



유승민 IOC 위원(대한탁구협회장)이 IOC 선수위원회 부위원장에 재선임됐다. 유 위원은 2022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베이징 현지에서 18일 열린 IOC 선수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한번 중책을 맡기로 확정됐다. 유승민 위원은 재선임 확정 후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큰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탁구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위원은 2016 리우 올림픽에서 선수위원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 유일 IOC 선수위원으로서 자유로운 영어 의사소통으로 국제스포츠 선수, 행정가들과 자연스러운 친화력을 발휘하며 IOC 내에서 신임 받고 있다. 작년 8월에는 2020 도쿄하계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 IOC 선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선수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재선임은 동료 위원들로부터 그와 같은 노력의 성과들을 인정받은 결과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집행위원회에 선출된 바 있다. 최근에는 2024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부산 유치, 탁구 프로리그 출범 등 한국 탁구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대한레슬링협회·합평군

레슬링 국가대표 1차 선발전 개최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및 아시아주니어·카дет 선수권 파견 선발 대회’가 지난 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대한레슬링협회가 주최하고 함평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 레슬

SPORTS1 NEWS

링을 이끌어갈 최고의 유망주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체급별 참가선수 규모에 따라 국제 토너먼트·노르딕 방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개최지인 함평군에서는 양시온 김종민, 나명길, 김가빈 등 4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선보였다.

대한바둑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승강제 리그 공모사업 도전



대한바둑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승강제 리그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 시스템구축과 전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승강제 리그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공모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3종목을 선정하며, 선정된 종목은 3년간 최대 63억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대한바둑협회의 유경민 사무처장은 “바둑은 판정 시비나 부상 위험이 없고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에 최적화된 클린 스포츠”라며 승강제 리그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고 강조했다. 바둑은 현재 소년체전, 전국체전의 정식종목이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전 종목 석권을 노리고 있다. 프로단체인 한국기원의 양재호 사무총장도 “바둑 발전을 위해선 아마추어 저변확대가 중요하다.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는 앞으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최근 문체부는 바둑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2년을 바둑 진흥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대한산악연맹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개최



대한산악연맹이 경북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경기장에서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2개를 연속해서 개최했다. 2022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와 전국 동계체육대회 산악 아이스클라이밍 대회가 19일과 20일에 열렸다. 19일에 열린 2022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는 2022~2023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렸다.

하루 뒤인 20일에는 제103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산악 아이스클라이밍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남녀 일반부 리드, 스피드 경기로 나뉘어 진행하며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서채현, 아이스클라이밍 대표 선수인 박희용, 신운선이 출전해 실력을 겨뤘다.

건강, 이렇게 쉽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 내 몸이 건강해지는 시간 7330!



오늘 얼마나 걸었나요?

답답할땐 운동이 답입니다!
건강한 신체로 면역력 UP
오늘의 위기를 넘어 더 건강해질 대한민국을 위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스포츠7330으로 함께해요

